

대중문화 안에서 살아숨쉬는 생명력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낸 유하씨

시의 세계는 무한한 상상력을 담보로 다양한 변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보장받는 것일까. 도저히 시어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시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못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중문화를 차용한 일련의 시로 충격적인 시세계를 보여준 시인 유하씨(29)가 그의 두 번째 시집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문학과지성사)를 통해 더욱 치열해진 시정신의 일면을 보이면서 시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총각이는 뽕 먹다 뽕 갖고” “짜랑해요 밀키스, 혹은 주윤빌론” “난 느껴요—苦口苦來(코카콜라).” 마치 공중화장실 벽의 적절한 위치에 ‘아로새겨진’ 낙서인 것 같은 이 구절들은 다음아닌 그의 시 제목이거나 내용의 일부이다. 이른바 키치(Kitsch)적인 요소로 불리우는 만화·무협소설·영화·광고·포르노 등을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형상화하고 있는 시인 유하. 그는 “등단전에 완성된 작품들로 빚어낸 「무림일기」 보다 이번 시집이 오히려 첫시집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저 화제성만이 부각될까봐 걱정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바람부는...」 연작시와 몇편의 시로 시집의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다는 얘기다.

“「무림일기」에서 시도한 대중문화적 요소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들들어 이 시집에서는 영화사회학이 배우사회학으로 치환되면서 디테일한 접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시집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전함 포템킨’ ‘13일의 금요일’ 등의 작품에서 ‘콜라속의 연꽃, 심해진論’ ‘수제비의 미학, 최진실論’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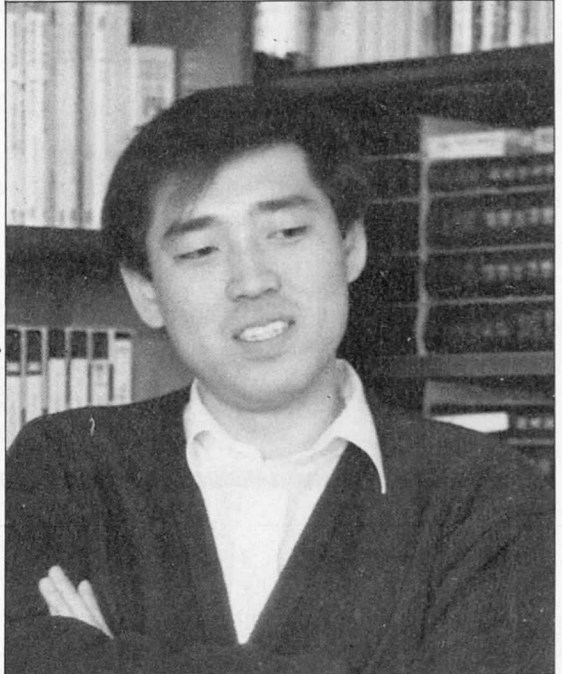
키치와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감행’ 하고 있는 그는,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고향인 ‘하나대’를 배경으로 한 유년체험을 다룬 시편에 애정을 둔다. 잊혀져가는 고향의 말을 찾아내고 시 속에 담는 작업 또한 새로운 세계와 문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일만큼이나 소중한 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중의 삶과 유리된 고답적인 형식과 진술에 그치는 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는, 대중문화 속에서 숨쉬는 독자들과의 만남을 원한다.

“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획일화되고 왜곡된 대중문화를 탄생시켰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고,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오도하였다는 인식에서 저의 작업은 출발합니다. 뒤튼린 대중문화를 견인해서 치유하기 위해 함께 반성하자는 의도였습니다.”

“키치중독자이며, 키치반성자”인 유하씨는 자신의 시가 갖는 특성에 대한 반론에 대해, 그것을 예상하고 ‘시적 전략’으로 삼았다고 한다. 바로 그러한 지적을 수렴해 다음으로 옮겨갈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는 연출가 지망생이기도 한 그는 영화에 ‘미친’ 문인들에게 귀한 소장품(비디오)을 대여해 최진실 만큼이나 인기가 높다는데, 영화와 문학이라는 예술양식은 결국 ‘한 우물’이라고 표현한다. 영상문화에 활자문화가 위축당하고는 있지만 활자문화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영상문화가 온전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요소가 활자문화를 유효하게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그의 지론이다. “그 독재자와 닮은 용모 때문에...텔런트가 위장약 선전을 하는 광고란이었

이른바 키치적인 요소로 불리는 만화·무협소설·영화·광고·포르노 등을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형상화하고 있는 시인 유하. 그는 “등단전에 완성된 작품으로 빚어낸 「무림일기」보다 이번 시집이 오히려 첫시집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저 화제성만이 부각될까봐 걱정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유하씨

어...오랜 위둥처럼 만인을 괴롭히다 죽은 사람이 딱하니 나타나 / 아무런 미안타는 기색도 없이 미란타를 권하는 이 현실을”(미란타 1)처럼 그의 시에는 패러디와 함께 몽타주수법 등이 그의 지론에 걸맞게 사용된다.

키치를 다루더라도 보다 심화시키고 싶다는 유하씨는 이제 걸음으로 드러나는 재미가 우선되는 시보다는 고향시편이나 불교·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성 회복을 노래한 시에 몰두하고 싶다고 전한다.

문화운동차원의 동인활동을 모색하기도 하는 그가 문화적 충격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을 꿈꾸고 노래하고 싶어하는 것은, “까지

떼가 지금까지 걸어 온 내 발길의 기억처럼 / 날아오르고, 난 다시 거슬러올라갈 수 없는 / 내 삶의 산길을 생각했”(약수를 걸으며)기 때문일까.

—최태원 기자

기이와 너의 표

☎ 738-7840 / FAX 737-0872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37의 1

生命의 신비는 깊습니다. 삶과 삶이 만나는 마당은 넓습니다.

그사람, 어느길로 가더나

• 강일상 지음



무조건의 확신이 범람하고 구원이 방해되는 세상에서 조금쯤은 흔들리고 가끔씩은 허전한 사람들.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는 세태 속에서 내 바꾸나만 비어 있는 것 같은 억울함으로 오늘을 매꾸어 나가는 이웃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 주는 참평화, 참자유, 참위안의 말씀들. 빈 손과 빈 손 사이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치관의 주소는 어디인가?

동양 정신과 서양정신의 결혼

• 베드 그리피츠 지음 / 정창영 옮김

유대, 그리스도교와 힌두, 불교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간 베네딕트회 수도승의 영적 순례기

서양 전통에 젖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직관적이고 여성적인 동양정신과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서양정신이 모순과 대립 없이 만나 따뜻한 화해의 강물을 이룬다. 진정한 지구인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진통과 출산,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편린들

내면의 불꽃

• 윌리엄 존스런 / 정창영 옮김

지구가 한마을이 되어가는 오늘날, 종교의 양대 산맥인 불교와 기독교의 접합점을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佛性和神性이, 空 체험과 神秘 체험이 포장만 다를뿐 내용물은 같다고 결론지은 예수회 신부의 종교 탐색. 우리들 내면에 간직된 사랑의 불꽃 안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녹아들 수 있음을 차분한 필치로 전개해 나간다.

잠든 하나님 깨우기

• 요엘 골드스미스 / 나중근 옮김



하나님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올라야, 그것도 죽음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먼 존재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곳 이 자리, 나의 호흡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상을 통해 깨달은 저자가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기독교 전통에 접목된 동양적 명상법의 세계.